

<세경본풀이>

- 일시 : 2018. 08. 18

세경 신중마누라님.

오늘 난수생 본수생 신풀어 올리저. 난산국을 본풀건 본산국, 본산국을 본풀건 난산국더레 제느려삽서.

세경하르바님 들물성간 세경할마님 썰물성간 문왕성 문도령 정이영서 즈청비 정이웃인정수남이, 정수택이 여청덜. 거느리멍 거부제로 살던 천하 짐전국 즈진국 부인,

지에 짐전국 대감 즈진국 부인님네 거부제¹⁾로 잘 살아도 남녀간에 부배간²⁾을 무언 이십 쓰물 삼십 서른이 뉘여도 슬하엔 즈식이³⁾ 없멍 유우무왕 허십데다.

흐를 날은 천하 짐전국 대감님이 일천선비 일만선비 골패바둑 두는 디 강, 바둑장기허영 노념놀이 허영 그 바둑장궐 문딱⁴⁾ 따가난, 걸추헌 선비가 허는 말이,

“천하 짐전국 대감님아, 그 돈을 다 땅 가민 아들이 잇멍 먹을거파? 딸이 잇멍 줄거파?”

그 말 대답 아니헤연, 두던 바둑 두어된 느려삽데다.

느려사단 보난, 높은 낭에 새, 가막새도 오즈즈즈 베려보난⁵⁾, 새끼 까네⁶⁾ 먹일 물어다 주엄구나.

느려사단 보난, 황천대소 웃음소리가 난, 좇아 간 보난, 비주리 초막살이가 잇었구나. 거죽문을 들앗구나⁷⁾. 손가락에 춤을 볼라 창고망 터주완 베려보난, 얻어먹는 계와시덜이⁸⁾ 어멍신디 잇인 애기 아방신디 걸어가민 일천대금 웃음소리. 아방신디 잇인 애기 어멍신디 걸어가민 일천대금 웃음소리가 남구나. 얻어먹는 계와시덜도 아이새끼 하나 놔 놓양⁹⁾ 일천대금 웃음소리가 남구나.

나도 집이가민 웃을 일이 잇일건가. 집이 들어간 구들 안네 들어 간 문을 뒹어¹⁰⁾ 앓어가난 즈진국 부인님이 허는 말이,

“늦인덕수 정하님아,”

안상녹에 도용칠반(統營漆盤) 상에 밥 혼상을 출런¹¹⁾ 들어간,

“이 밥 먹읍센.”

1) 거부제: 큰 부자.

2) 부배간: 부부간.

3) 즈식이: 자식이.

4) 문딱: 모두. 전부.

5) 베려보난: 바라보니.

6) 까네: 낳아서.

7) 들앗구나: 달았구나.

8) 계와시덜이: 빌어먹는 사람들이.

9) 놔 놓양: 낳아 놓고서.

10) 뒹어: 달아.

11) 출런: 찰려서.

허난,

“밥 생각 엇우다.”

벌써 눈치를 알안

“이 밥을 먹어봅서. 옷을 일이 잇일 듯 험네텐.”

허난, 그 밥을 먹여 밥상을 물려간다. 앞뎃자 문을 올라¹²⁾ 간다. 은진, 강진 장관
끌앗구나. 술아 만단지로구나. 은두리 방석에 은단쟁¹³⁾에 서단마겔 막안 이레저레
동골여 봐도¹⁴⁾ 웃음소리가 아니 납테다.

살단보니, 흐를 날은 동계남은 상저절 서계남은 은중절 남계남은 농농절 북하산
은 미아 안동절 절간 직헌 중이 대스님네가 당(堂)도 파락(擺落) 절도 파락이 웨여
가난, 권제¹⁵⁾를 삼문 받아당 헌당 헌절을 수비허저. 혼 침 둘러 굴송낙, 두 침 둘러
비랑장삼, 백과염줄(百八念珠) 목에 걸고 지포잘리¹⁶⁾ 아강베포 웨우 느다¹⁷⁾ 메연
하늘 골른 만족대를 짚여 지곡성더레 권제 받으레 느려삽네다.

각리각리 촌촌, 동으로 들민 서으로 나고, 서으로 들민 동으로 나고, 웨로 받을
던 흠으로 받으멍 뎡기단 보난, 천하 짐전국 대감님 먼올레 근당(近當)이 웨언,

“스승은 절이 웹네다.”

“권제 삼문 내보냅서.” 삼헌

“늦인덕수정하님아, 권젤 거령 오라.”

은분치에 도군 물려 권젤 거려오난,

“높이 들령 늦이¹⁸⁾ 스프르.”

올려가니, 권젤 내어된 돌아사젠 허난,

“대스님아, 우리가 이제도 남녀간에 부베간을 무어신디 이십 쓰물 삼십 서른이
웨여도 애기가 엇언 저들암수다¹⁹⁾. 애기가 엇이렌 현 팔즈팡 둘러봅서.”

허난,

“절간 지권 중이 대스 몸이라 천기를 알 수 잇입네까만은, 애기 엇영 무으렌 현
팔즈는 아니우다.”

“어평허민 웹네까?”

“영급 실력헌 이구산에 올랑 불공이나 드려봅센.”

허멍. 대스님은 첩첩산중더레 올라가는구나 예.

올라사니, 짐전국 대감, 즈진국 부인님은 강बाट디는 강나룩 모बाट디는 모나룩 수답
엔 수나룩을 싱거간다. 대백미 중백미 웨백미 일천 섬을 출려가는구나. 드릿베도 구
만장, 가삿베(袈裟地)도 구만장 걸렛베도 구만장 마바리에 시꺼간다.

12) 올라: 열어.

13) 은단쟁: 은당병.

14) 동골여 봐도: 굴러 봐도..

15) 권제: 시주.

16) 지포잘리: 자루.

17) 웨우 느다: 왼쪽 오른쪽.

18) 늦이: 낮게.

19) 저들암수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마당더레 수릴두고 올레엔 막음두언, 첩첩산중더레 불공허레 올라삼네다.

올라사단보니, 싱근돌에 뿔팡돌²⁰이 잇엇구나. 높은 절간에 네눈이 반동개²¹가 드리쿵쿵 내쿵쿵 지으니,

“야, 스서중아, 저레 나고보라. 어디 양반이 불공허레 오람시니?”

허난,

“어평허난 양반인증 알겠습네까?”

“네눈이 반동개가 양반은 오라가민 네 발 짚영 주끄고²², 중인은 오라가민 두 발 짚영 주끄고, 천민은 오라가민 드러누웁 주끈다. 저거 베려보라.”

스서중이 느려사단보난, 싱근돌에 뿔팡돌(下馬石)이 잇언 짐전국 대감 즈진국 부인님이 쉬엄구나.

“스승은 절이 뿔네다.”

“어서 올라오십서. 어디서 나온 양반이파?”

“우린 천하 짐전국, 지에 즈진국 부인이다.”

“어서 올라오십서.”

“너이 절간이 영급(靈及)수덕이 좋덴 허난 수록 들이레 오람구나.”

어서 청허여 간다. 올레 막음수리 두어간다. 안스랑 밧스랑 내외스랑 출렛구나. 백일 정성 허젠 허난, 상탕에는 메를 짓고, 중탕엔 모욕허고, 하탕엔 수족 씻전 백일 기도 들어가는구나.

들어가난, 돈아 올뎨 일광님 지어 갈 뎨 월광님 옥계 천신님도 사나사나 올려두고, 백일째 뉘는 날은 중이 대스님이 허는 말이,

“짐전국 대감아, 즈진국 부인님아, 오늘이 백일째 뉘는 날이우다. 대추낭 꼬까마귀저울대²³로 저울영 백근이 차민 아들을 날거고, 백근이 아니 차민 똬을 납네다.”

“엇인 사름이 피, 곡식을 글립니까²⁴,”

대추낭 은저울대로 저울이난 백근은 아니 차고 아흔아홉 근량이 뉘없우다. 어서 느려상 합공일을 반양 부베간을 무읍센.“

허난, 부처님전 하직 문안 현다. 대스님전 하직 문안 현다. 올레 막음수릴 두언 첩첩산중더레 느려삼네다. 느려사단보니 해는 서산에 지언 인간처를 등길 수가 엇언 어욱폐기²⁵ 치메를 둘런 누웠인디 무정눈²⁶에 즘이 들어간다. 앞니명엔 햇님이 여 뒷니명엔 들님이여. 제비새 젓늘개 곱은²⁷ 애기씨, 물 아레 옥돌곱은 애기씨가 콤 안터레²⁸ 엄떡허게²⁹ 들어오라 가는구나. 이거 확허게 깨난 보난 꿈이로구나.

20) 뿔팡돌: 말을 타고 내릴 때 밟고 타고 내릴 수 있게 만든 받침대.

21) 네눈이 반동개: 개를 일컫는 말. 눈이 네 개인 것처럼 보이는 개.

22) 주끄고: 짓고.

23) 꼬까마귀저울대: 대추나무로 만든 옛 저울. 까마귀 주둥이 같은 갈퀴에 달아매게 되어 있음.

24) 글립니까: 곱습니까.

25) 어욱폐기: 억새포기.

26) 무정눈: 몹시 괴로운 일을 당하여 잠을 이루지 못할 처지인데도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생리적으로 졸리면서 스스로 잠기는 ‘철없고 무정한 눈’이라는 뜻.

27) 젓늘개 곱은: 젓날개 같은.

28) 콤 안터레: 품 안으로

해몽산에 간 해몽을 해연 합궁일을 반안 부배간을 무어간다.

즈진국 부인님이 석달 백일 뉘어가난, 어평허난, 흐를 낱은 잇어가난 떡단 밥에 골내가 나고, 떡단 국엔 장칼내³⁰⁾가 나고 떡단 물엔 펼내³¹⁾가 나고, 입단 옷엔 땀내³²⁾가 나는구나.

대으섯 달(月) 열 달 과만차난 애긴 낱는 게 여즈식이 솟아나는구나.

솟아나난, 애기 이름은 무시거엔 지으리. 우리 절간에 강 우리가 즈청허영 나부난, 노가단풍즈지명왕, 즈청비로 이름 생명을 지왔구나.

흔 설 두 설 대으섯 설이 넘어간다. 예서일곱 설이 넘어간 상다락에 노념헌다. 중다락에 노념헌다. 하다락에 노념을 허니, 영 사노렌허난,

열다섯 십오 세가 넘어간다. 흐를 낱은 상방문을 올안 보니 아이고, 늦인덕수정하넘은 베려보난, 소지 청소를 험시난,

“아이고, 나는 어평허난 손에 때가 끼엿이니?”

“상전님은 상전님이라부난 일을 안허주만은 나는 종이라부난, 아침 즈낙 일어났든 청소허고 일허곡 허단보난 손에, 손톱에 때가 끼엿우다. 경 허영 빨래³³⁾ 서답³⁴⁾ 허민 손톱에 때가 든 뱃겨집네다.”

“경 허민 나도 이거 험소넨?”

“나보단 더 곱네다.”

경 허난, 흔 설 두 설 열다섯 십오 세에 입단 의복을 든³⁵⁾ ㄴ는대 질레구덕에³⁶⁾ 답안 빨래, 서답허레 중천당 연못가를 느려산 서답을 허노렌 허난,

하늘옥황에 문왕성의 아들 문도령이 아랫녘에 거무선생안티 글공부 배우레 오젠 허난, 등에 붓짐을 지고 느려사단 보난, 중천당 연못가에 이제도 근당이 뉘난, 천하 야기씨가 잇엇구나. 남자에 기십으로 임부련 기부련이나 허여보젠

“넘어가는 사름이우다. 애가 ㄹ킴 물르난³⁷⁾ 물을 흐꿈³⁸⁾ 줍센.”

허난, 즈청비는 꼭박세기에³⁹⁾ 물을 거련 삼세 번을 땅땅 두드룬다. 이레저레 하울하울⁴⁰⁾ 젓어간다. 수양청버드낭 섭⁴¹⁾을 해연 띠와간다. 안네난⁴²⁾, 물을 먹어놓고 허는 말이,

“어평허난, 얼굴도 곱곡 므음씨도 좋은 거 닻은디, 어평허난 물을 삼세 번을 두드

29) 엄뚱허게: 주로 차가운 것에 닿았을 때 놀라 깜짝하다.

30) 장칼내: 된장의 찌꺼기 냄새.

31) 펼내: 흙탕물 냄새.

32) 땀내: 땀 냄새.

33) 빨래: 빨래.

34) 서답: 빨래.

35) 든: 모두.

36) ㄴ는대 질레구덕: 가는데로 만든 바구니에.

37) 애가 ㄹ킴 물르난: 속이 바짝 마르다.

38) 흐꿈: 조금.

39) 꼭박세기에: 박을 쪼개어 시를 파내고 만든 자그마한 바가지에.

40) 하울하울: 하늘하늘.

41) 섭: 잎.

42) 안네난: 안내니.

립디가?”

“아이고, 물에도 거머리가 잇는 법이라. 거머리가 알리레 느리와의렌⁴³⁾ 딱렸우다.”

“무사? 물을 이레저레 활활 젓읍디가?”

“물에도 먼지⁴⁴⁾가 이시난 이레저레 젓엇우다.”

“무사? 수양청버드낭 섭을 놓데가?”

“넘어가던 사름 급히 물 먹영 체허민 약이 없는 법입네다.”

즈청비도 문도령 말을 들으난 좋앗구나. 문도령도 즈청비 말을 들으난 좋앗구나.

“읍서. 우리 통성명 허겐.”

허난,

“나는 주년국 즈청비우다.”

“나는 하늘옥황 문왕성의 아들 문도령인디 아랫넛에 거무선생안티 글공부허레, 배우레 오랴우다.”

즈청비가 허는 말이,

“그게 아니고, 우리 집이 강. 나영 혼날 혼시 난 동생이 이신디, 아이고, 벗이 엇영 글공부 못 허염수덴.”

허난,

“경 끝이 가는 게 어떠웁?”

허난,

“어서 걸랑 기영협서.”

올레 강 세와두고,

“이디 사십서.”

즈청비는 들어간,

“아바님아, 어머님아, 나 글공부 강 오쿠다.”

“야, 험도 험저. 여칭⁴⁵⁾이, 여칭이 글공부엔 말이 무시거닌?”

“생각헤봅서. 아바님, 어머님 이제라도 죽으민 누게가 축지방을 씌네까?”

“것도 들영보난 맞은 말이로구나.”

여자 방에 강 여자 옷 벗어두고, 남자 방에 강 남자 옷 갈아입고⁴⁶⁾ 등에 붓짐을 지꼭 허연. 나오란 소곡이 절을 허난,

“아이고, 나는 즈청 도령이우다. 어떠난 곳사⁴⁷⁾ 들어간 이와 똑글으넨⁴⁸⁾?”

허난,

“생각허여 봅서. 혼 아방 혼 어멍에 혼 날 혼 시에 태어낭 얼굴이 틀릴 리가 잇입네까?”

43) 느리와의렌: 내려와지라고.

44) 먼지: 먼지.

45) 여칭: 여자.

46) 갈아입고: 갈아입고.

47) 곳사: 방금.

48) 똑글으넨?: 똑같습니까?

아랫녘에 거무선생안티 글을 배우레 가는구나. 그날 저녁인 즘자젠⁴⁹⁾ 허난,
아이고, 이거 즘청빈 어떻허코, 남녀간이라. 누원. 은대양에 물을 거려다 낱 짓가
락을 걸천, 하시를 걸천 누웠구나. 뒤녘날 아침인 일어나난, 문도령이 허는 말이,
“어떻허난, 은대양에 하시를 걸척이넨?”

허난,

“하실 걸척 자민 글도 자원허곡, 활도 자원허곡 영 허영 방쉬⁵⁰⁾로 영 허엇넨.”

허난, 문도령은 어리석엇구나. 나도 흥번 해보젠, 그날 저녁엔 오랑 이녘도 은대
양에 물을 거려다 낱 하실 걸천, 밤세낭 거찌지카부넨⁵¹⁾ 즘을 못 잔. 뒤녘 날은 즘
청빈 믱음 낱⁵²⁾ 즘을 자고, 거무선생안티 글 배우레 가난, 거무선생이 하늘 천 따
지 허민 즘청비도 하늘 천 따지, 문도령은 앓앙 꾸벅꾸벅 졸아가난, 거무선생, 훈장
선생님은 대막데기로 확허게 내후려가는구나.

영 허니, 글도 떨어진다. 활도 떨어진다. 문 떨어지난,

“야, 오라 느영 나영 씨름이나 흥번 해보게, 오즘 굴리기⁵³⁾나 허여보젠.”

허난,

“어서 걸랑 기영 허렌.”

아이고, 오즘 굴릴락⁵⁴⁾ 허젠 허난,

‘문도령은 남자주만 나는 여자라부난 어떻허코.’

물똥⁵⁵⁾ 두 봉텅이 좇어다 낱, 좇어다 놓고 왕대 믱작⁵⁶⁾ 끊어다 낱 강알에 찬, 오
즘 굴릴락을 허난, 문도령은 으섯 방축⁵⁷⁾을 굴리곡, 즘청빈 열두 방축을 굴려가는
구나. 오즘 쌀락은⁵⁸⁾ 지고,

“이젠 씨름이나 허여보게.”

‘하이고, 어떻허민 좋으리. 남녀 간에 씨름을 헌텐 말이니. 나가 질거고.’

허난, 즘청빈 꿰를 내언 춤지름⁵⁹⁾을 해단 양착 귀에 문지락허게⁶⁰⁾ 발라놓고 이레
심젠 허민⁶¹⁾ 저레 피허곡, 저레 심젠 허민 이레 피허곡 허단, 문도령이 즘청비 귀
를 영 잡으난, 민칠락⁶²⁾ 허난 그 트멍을 탄 자청비는 문도령을 두러메다 처⁶³⁾ 가는
구나. 씨름도 지어간다.

흐를 낱은 문도령이 허는 말이,

49) 즘자젠: 잠자려고.

50) 방쉬: 제주 무속에서 좋지 못한 것을 막거나, 몰아내는 징표로 하는 일.

51) 거찌지카부넨: 건드려질까봐.

52) 믱음 낱: 마음 뇌서.

53) 굴리기: 어린아이들이 하는 내기로, 오즘 따위를 멀리 싸기 내기.

54) 굴릴락: 오즘 머리 싸기.

55) 물똥: 말똥.

56) 믱작: 대나무 따위의 마디나 실의 매듭.

57) 으섯 반축: 여섯자 반.

58) 쌀락은: 싸기는.

59) 춤지름: 참기름.

60) 문지락허게: 축감이 매끄럽고 부드럽게.

61) 심젠 허민: 심으려고 하면.

62) 민칠락: 걸이 매끄러운 것을 쑥 빠뜨리다.

63) 두러메다 처: 둘러메어 처서.

“나, 하늘옥황에 올라가사키여.”

“무사 경 험시넨?”

허난,

“아바님신디서 편지가 와신디 서수왕에 장게 가렌 허염구나.”

“아이고, 올 때도 곶이 와신디⁶⁴), 갈 때도 곶이 글동무를 허겐.”

허난,

“어서 걸랑 기영 허렌.”

가단 보난, 물통이 우알넝 통이 잇엇구나. 경 허난, 즈청비가 허는 말이,

“문도령은, 넌, 활도 떨어지고, 글도 떨어지고, 오줌 곶틸락 씨름 헤연도 다 떨어
지난 늘랑 알통에서 몸 곱으라⁶⁵). 난 옷통에서 몸 곱으키여.”

경 허난, 문도령은 남자난 우알로 민짜 벗어놓고 이레 텀블랑⁶⁶) 저레 텀블랑 허
멍 허곡, 즈청빈 여자라부난 옷도 못 벗고 보선 발만 신영, 그자 물에 발만 동강 통
통 허여간다.

“아이고, 흐 구들에⁶⁷) 즈을 자도 남녀 구별법을 몰른⁶⁸) 저 어리석은 문도령이로
구나.”

그때엔 수양청버드낭 이파리에 글을 써근에

‘야, 어리석은 문도령아, 흐구들⁶⁹)에 즈을 자도 남년 중 몰랐구나.’

영 허영 흘러가난, 몸 곱단 베려보난, 나무 이파리 느려가난 베려보난 글을 써시
난,

“아이고, 나가 이거 속아지엇구나.”

즈청빈 주년국더레 느려부난, 제기 든젠 허난⁷⁰) 바지 가달도 혼 가달에 두 개씩,
우잇 옷도 입젠 허난 흐착은 걸쳐지고 흐착은 아니 걸쳐지멍

“즈청비야, 그디 사시라⁷¹). 곶을 말이나⁷²) 잇엇구나.”

가근에 만단홀목 휘어잡앙 울어간다.

“경 허지말앙 오늘 저녁이랑 나영 강 누웠당 널랑 갑서.”

허난, 아이고, 문도령은 서른으담 니빠디⁷³)가 허우덩씩⁷⁴) 허영,

“어서 기영허렌.”

“올레 사십서.”

“아바님아, 어머님아, 나 즈청빈디 글공부 간 오랏우다. 곶을 말 잇우덴.”

64) 곶이 와신디: 같이 왔는데.

65) 몸 곱으라: 몸 씻어라.

66) 텀블랑: 조금 크고 묵직한 물건이 물 속에 떨어질 적에 나는 소리.

67) 구들에: 방에.

68) 몰른: 모르는

69) 흐 구들: 한 방.

70) 제기 든젠 허난: 빨리 달리려고 하니.

71) 사시라: 서 있어라.

72) 곶을 말이나: 할 말이.

73) 니빠디: 이빨.

74) 허우덩씩: 매우 기뻐서 입을 크게 벌리며 웃는 꼴.

허난,

“무시거넌?”

허난,

“아이고, 끝이 공부허단 사름이 가젠 허난, 해는 서산에 지어불곡 허난 흐룻밤 재
윗당 보내젠 험수덴.”

허난,

“남자가? 여자가?”

“남자우다.”

“열다섯 십오 세가 넘어건덜랑 우리 방에 보내곡, 열다섯 십오 세가 아니건들랑
느네 방더레 가렌.”

허난,

“열다섯 십오 세가 안뻬우다.”

“계건 들앙가라⁷⁵⁾.”

구들러레 들어간 문도령 즈청비 만단홀목 휘어잡안 사랑, 사랑, 품사랑을 허여간
다. 상동나무 용얼럭지⁷⁶⁾ 두 돌랭이 꺾언 올려두고 문도령은 올라사부난,

즈청비는 흐를 날은 심심도 허고 장방문을 올안 보난, 저, 놈이 집이 종들은 쉼
쉬 물므쉬에 굴미굴산 아약산성 신산곳을 도올란 문 관관세⁷⁷⁾를 헤여앗언 등에 ㄱ
득ㄱ득 시끄고⁷⁸⁾ 메화 꽃을 물머리에 꽃앙 콧노레를 불르명 오랏구나. 우리 집이
정이엇인정수뵈이 메방석 닳은 머리광 어디 강 니 사농⁷⁹⁾이나 허염신고 좃단보난,
아닌게아니라 딱똥헌⁸⁰⁾ 헤착에 간, 메방석 닳은 머리에 누워드러 코골명 잠시난,

“야, 이 놈이 즈석아, 저 놈이 즈석아, 저 놈이 집 종덜은 보라. 가근에 쉼쉬,
물므쉬에 다 관관세를 헤여놓고 메화 꽃을 꽃고 콧노렐 불르명 오람구나. 는 이디
누워 니 사농만 허염시냐?”

“아이고, 상전님아, 나에게 후육누육 허지 말앙 쉼백세 물백세도 내여줍서.”

쉼백세 물백세 내여주난, 쉼 아흠, 물 아흠을 내여주난, 그걸 앗앙 굴미굴산 아약
삼성 신산곳을 도올라근에⁸¹⁾ 동더레 벌은 가지 서러레 벌은 가지 문, 물므쉬⁸²⁾ 문
딱 묶어놓고 드러누워 드러 코골명 줌자단 보난⁸³⁾, 깨난보난 몰아흠 쉼아흠이 문딱
죽엇구나. 메툽 닳은 손으로 물가죽은 벅건 헤여놓고, 익어시냐 혼점, 설어시냐 혼
점, 그 궤길⁸⁴⁾ 문딱 떡어놓고.

‘어땡허민 조코?’

75) 들앙가라: 데려가라.

76) 용얼럭지: 머리땃.

77) 관관세: 마르고 마른 띠.

78) ㄱ득ㄱ득 시끄고: 가득가득 신고.

79) 니 사농: 니 사냥.

80) 딱똥헌: 따뜻한.

81) 도올라근에: 올라가서.

82) 물므쉬: 말과 소.

83) 줌자단 보난: 잠자다 보니.

84) 궤길: 고기를.

상전님안티 욱을 들음직히고, 느려사단 보난 중천당 연못디 물오리가 혼쌍 잇엇
구나. 저걸 맞청 가민 우리 상전님이 웃을로구나. 황기도치 앓아낸 자락허게⁸⁵⁾ 맞
치난 물오리 혼쌍은 포로록 놀아나 불고⁸⁶⁾, 황기도친 물러레 평허게 빠지난,

‘아이고, 어떻허민 조코?’

정이엇인정수냄인 우알로 민짜⁸⁷⁾ 벗언 물안네 들어간 이레 팔탕 저레 팔탕허멍
황기도친 좃앙오란 보난, 피채글은⁸⁸⁾ 도둑놈들은 물가죽이여, 정이엇인정소냄이 고
쟁이⁸⁹⁾ 점벙이⁹⁰⁾영 문딱⁹¹⁾ 앓안 돌아나부난,

‘아이고, 어떻허민 조코?’

이제, 계낭 이파리를 허연 정당줄⁹²⁾로 ㄱ숨은 막아놓고 영 허영 이제도 그 법으
로, 옛날엔 밧디 가민, 밧디 예염⁹³⁾ 마다 이신디, 그 법으로 냄새 난덴 험네다. 영
허난, 오란, 이밤과 저밤세 오란 장독대에 주쟁이⁹⁴⁾ 썩 앓아시난, 뒤넉날 아침인 상
전님이

“정술턱이야 강 장 거렁 오라.”

“어서 걸랑 기영 험서.”

장 거리레 오란보난, 어떻헤연 장항 뚜껍이 들씩들씩 허난, 아이고, 상전님신디
강 글으난⁹⁵⁾ 상전님이 오란 허는 말이, 베려보난, 장항 뚜껍이 들씩들씩 허염시난,

“야, 귀신이나? 생인이나? 나오라. 나오랑 귀신이민 옥황더레 도올르고, 사름이민
나오렌.”

나오는 건 보난, 정이엇인정수냄이로구나. 우알도 민짜 벗어놓고 계낭 이파리로
정당줄로 ㄱ숨을 막았구나.

“야, 이거 남즈가 어떻허난 우알로 민짜 벗언 어떻허연?”

후육누육 허여가난, 상전님은 이말 글으민 좋을거라.

“그게 아니고 느려사단 보난, 하늘옥황 문왕성 문도령이 궁네청 원네청이영 오랑
몹모욕허단 올라갈 때 나 고쟁이 점벙이 문딱 앓앙 가비엇우덴.”

허난, 옥허당도 문도령 말 글으난 서른으담 니빠디를 허우덩씩 웃어가난,

“어느 때 또 오켄 헤니?”

“모릿날 스오시 웨민 오켄 험디다.”

“느, 계민 오라난 디⁹⁶⁾ 알아질타?”

“무사 모름네까.”

85) 자락허게: 힘차게 던지는 꼴.

86) 놀아나 불고: 날아가 버리고.

87) 민짜: 아무것도 걸칠 것 없는 꼴.

88) 피채글은: 피채 ㄱ뜨다. 동작이 재빠른 꼴을 나타낸 말.

89) 고쟁이: 속옷 바지.

90) 점벙이: 잠방이.

91) 문딱: 모두.

92) 정당줄: 땡땡이덩굴.

93) 예염: 길이나 담장의 옆.

94) 주쟁이: 띠를 엮어 원뿔 모양으로 만든 것.

95) 글으난: 말하니.

96) 오라난 디: 왔었던 곳.

그때엔,
 “정이엇인정수넴이야, 저 고쟁이 점벙이도 헤여주라.”
 든 헤여주난, 흐를 날은 이시난에,
 “정이엇인정수넴아, 오라난 디 좃아 글렌.”
 허난,
 “아이고, 기영 험셴.”
 허난,
 “상전님아, 는쟁이⁹⁷⁾ 범벅을 허뵈, 두 덩어리랑 소금 닷 뵈 ^{ㄹ루}⁹⁸⁾ 닷 뵈 낱 허
 곡, 흐 덩어리랑 간을 맞추앙 험셔.”
 “어서 걸랑 기영 허라.”
 는쟁이 범벅을 소금 닷 뵈, ^{ㄹ루} 닷 뵈를 난에 범벅을 허여놓고, 흐 덩어린 간 맞
 추왕⁹⁹⁾ 허여 놓고,
 “새 물을 ^{ㄹ르치젠}¹⁰⁰⁾ 허민 물머리 코스¹⁰¹⁾를 해야 험니다.”
 “어떻해야 뵈느니?”
 상 하나 와당탕 허난,
 “안 뵈네다. 물머리 코스 해야 험니덴.”
 허난, 그때에는 허는 말이,
 “어떻허민 뵈느니?”
 “독 흐 ^{ㄹ리}¹⁰²⁾ 잡아 놓고 출령 놉셴.”
 허난, 그와 같이 출려 노난, 절을 헤연, 꾸박허게 허여두고 제반¹⁰³⁾ 걸어앗언 물
 귀에 지르난¹⁰⁴⁾ 들은 탁탁 털어가난,
 “이거 봅셔. 벌써 이것도 알앙, 말 못허는 물^{ㄹ쉬}도 알암수게.”
 경 허난,
 “느, 상 먹어불렌.”
 허난,
 “아이고, 상전님 안 뵈니다. 상전님 먹다 남은 거는 하인이 먹고, 하인이 먹다 남
 은 건 개, 도세기¹⁰⁵⁾가 먹읍니다.”
 “계건, 느, 앓아당 다 먹어불라.”
 쉼막¹⁰⁶⁾에 간 빙에기만씩¹⁰⁷⁾ 들막들막 먹엇구나. 먹어놓고

97) 는쟁이: 메밀을 맏돌에 갈아 가루를 만들 때, 가루를 쳐낸 그 나머지로, 갈린 껍질과 가루가 뒤섞인 나깨.

98) ^{ㄹ루}: 가루.

99) 맞추앙: 맞추어서.

100) ^{ㄹ르치젠}: 가르치려고.

101) 물머리 코스: 혼인잔치 따위에 신랑이 탈 말에게 지내는 고사.

102) 독 흐 ^{ㄹ리}: 닭 한 마리.

103) 제반: 잡식.

104) 지르난: 속으로 들이미니.

105) 도세기: 돼지.

106) 쉼막: 소의 외양간.

107) 빙에기만씩: 병아리만큼.

“상전님이랑 점심 밥을 정 읍서. 난 물 ㄹ르치젠 허민 물을 탕 올라가쿠편.”

허멍 올라사멍 구쟁이 닥살¹⁰⁸)은 툃허게 앓아 두고 물 우트레 올라타난 물은 와 당탕 헤가난, 굴미굴산 아약삼성 신산곳더레 올라 들는구나¹⁰⁹).

정이엇인정수넴인 간, 동드레 서러레 벌은 가진 묶어두고 드릉드릉 즘은 잠시난, 아이고 상전님은 점심 밥 정 가도가도 끝이 없구나. 가단보난, 굴미굴산 아약삼성 올란보난, 정이엇인정수넴인 드러누웁 즘 잠구나.

“이놈이 즘식아, 저놈이 즘식아, 날ㄹ라¹¹⁰) 점심 밥 정 오렌 헤된, 는, 니테로 이 디 왕 즘을 잠시냐?”

“그게 아니고, 난 새 물 ㄹ리쳐나부난 누웠우넸.”

허난,

“아이고, 배 고프난 밥이나 먹영 가게.”

허난,

“이레 오라. 끝이 먹게.”

허난,

“아니 웹네다.”

“무사 경 헤염시니?”

“아는 사름은 상전님허고 종허고 밥 먹엄젠 허주만은 물론¹¹¹) 사름은 두갓(夫婦) 이엔 험니다.”

“아이고, 경 허건 경 허렌.”

허난, 앓앙 점심 밥을 먹젠허난, 즘청비는 짹짹헤연, 는쟁이 ㄹ루 닷똥 소금 닷똥 난 범벽을 허난, 짹짹허난 못 먹고, 정이엇인정수넴인 간을 맞추왕 허난 그걸 먹노 렌 허난,

“이레 앓영 오라. 는 걸랑¹¹²) 밥으로 먹고, 나 걸랑 출레¹¹³) 적정¹¹⁴) 먹젠.”

허난,

“안웹네다. 상전님이 먹다 남은 건 하인이 먹고, 하인이 먹다 남은 건 개, 돼지가 먹읍네다.”

“게건, 는 문딱 앓아당 먹어불렌.”

허난, 이녁 건 밥을 먹고, 상전님 건 출레 적전 빙에기만씩 먹어놓고. 하도 애가 물란, 즘청빈 애가 물르난 물을 흐뎡¹¹⁵) 도렌¹¹⁶) 허난,

“물을 흐뎡 도렌.”

허난, 가단보난 물통이 잇엇구나. 이 물 먹젠 허난,

108) 구쟁이 닥살: 소라 꺾질.

109) 들는구나: 달리는구나.

110) 날ㄹ라: 나에게.

111) 물론: 모르는.

112) 는 걸랑: 네 것은.

113) 출레: 밥 먹을 때 국과 채소를 제외한 반찬. 주로, ‘간장, 된장, 젓갈’ 따위를 가리키는 것.

114) 적정: 적셔서.

115) 흐뎡: 조금만.

116) 도렌: 달라고.

“못 먹읍네다.”

“무사 경 험시니?”

“쉐백세, 툄백세가 먹단 물이난 못 먹읍네다.”

느려사단 보난, 물이 이시난, 이 물 먹젠 허난,

“안웁네다.”

“무사 경 험시니?”

“이건 총각 죽은 물입네다.”

“아이고, 이거 어떻게야 웨크니?”

하도 경 해가난,

“물을 먹젠 허민 우알로¹¹⁷⁾ 민짜허게 벗어놓고, 또꼬냥은 하늘 우트레 허게 허곡,
입이랑 물러레 덴 먹어야 험니덴.”

허난,

“난 죽으면 죽어도 경 못헐로구나.”

영 허여간다. 정이엇인정수넴이가 우 알르로 옷 민짜허게 벗언 또꼬냥은 하늘 우
트레 ㄹ슴은 드랑허게¹¹⁸⁾ 해놓고 물을 먹어가난, 즈청비가 허는 말이,

“아이고, 중과 살민 맞사리아. 나도 우 알로 민짜 벗언 궁뎡인 하늘 우트레¹¹⁹⁾ 헤
여놓고 물을 먹젠 허난, 정이엇인정수넴인 상전님 옷 앗앙 빙빙 돌멍,

“아이고, 어리석은 상전님아, 어느 게 문왕성 문도령입네까.”

“아이고, 나가 저거안티 속아지엇구나. 나 옷 도라.”

“안 웁네다.”

“나 옷 도라.”

“안 웁네다. 상전님 앗두 곁은 입술이나 쪽허게 빨아보쿠다.”

“나 입술 뺏는 것보다 나 눅는 디 강 보민 꼴단지가 이신디 그거 뺏는 게 더 좋
아진다.”

“젯통¹²⁰⁾이나 몽실몽실 문직아 보쿠다¹²¹⁾.”

“아이고, 나 젯통 문직는 것보다는 나 눅는 디 강 보민 가지깁이¹²²⁾ 문직는 게
더 좋아진다.”

“경 허민, 좃대 곁은 허리나 안아보쿠다.”

“나 허리 안는 것보다 나 구들에 강 보민 원앙칭칭 베개 잇어지다, 그제 안는 게
더 좋아진다.”

아이고, 펄떡곶이¹²³⁾ 용심난다. 해는 서산에 지어가난,

“아이고, 정이엇인정수넴아, 오라. 느영나영 오늘도 이 밤을 세영 가젠 허민 뵘

117) 우알로: 위아래로.

118) 드랑허게: 목직한 것이 밑으로 쳐져 늘어지게 매달려 있는 꼴.

119) 우트레: 위로.

120) 젯통: 가슴.

121) 문직아보쿠다: 만져보겠습니다.

122) 가지깁이: 개지. 놋그릇의 뚜껑.

123) 펄떡곶이: 펄쩍 뛸 듯이.

해살 거 아니넨.”

허난, 그때엔 동더레 서러레 묶은 거 문딱 묶어놓고, 큰돌 작은돌 도리도리 다완 허는 말이,

“날랑 안네서 불 살르건 덜랑, 늘랑 베꼈디서¹²⁴⁾ 내¹²⁵⁾ 나오는 양 고망¹²⁶⁾을 막으렌.”

허난,

“어서 걸랑 기영 험서.”

안으로 불을 살란, 정이엇인정수넨인 베꼈달로 헨예. 허나 막으민 즈칭빈 안네서 두 개 터불고, 두 개 막으민 세 개 터불고 허단 보난 동이 터부난, 정이엇인정수넨인 또 펼떡굴이 용심나는구나.

“이레 오라. 나, 느 니나 잡아주마. 나 무릅 베영 누라.”

무릅 베영 누난, 메방석 닳은 머리광 무릅 베영 뉘가난, 머릴 헤쓰멍 훑은 니는 장수로 놓아두고, 즈 니는 졸병으로 놓아두고 중간 니를 꼭꼭 잡아가난, 아이고, 정이엇인정수넨이 메콧굴은 손툽광 웨스렁 닳은 손이 가슴드레 슬금슬금 들어오라가난, 아이고, 어평허민 조코 베려보난, 찻가시낭 이시낭 찻가시낭을 앓아내언, 정이엇인정수넨이 웬귀 느단귀¹²⁷⁾ 꼭허게 찢러부난 피가 찰찰 난 죽어가는구나 예.

영 허난, 즈칭비가 허는 말이,

“이 몰아, 저 몰아. 느도 살곡, 나도 살곡 허컨덜랑 오라난 질¹²⁸⁾ 혼저 좇앙 글렌.”

허난, 몰안장에 탄 와장청청 느리난, 산신백관에서

“어평허난 무지력총각 양쪽에서 피가 찰찰 남시니?”

허난, 겁이 바짝 난, 집으로 들어 간,

“아바님아, 어머님아, 들어볼 말 잇우다.”

“무시거니?”

“종이 중허파? 즈식이 중허파?”

“그게 아니여. 종은 오늘 내일 부리당 보내불민 그만이고, 즈식은¹²⁹⁾, 애기는 이 녀 천륜이난 꿩을 수가 없는 게 즈식이여.”

“아이고, 경 허난, 정이엇인정수넨이 죽여뉘 오랏우텐.”

허난, 허는 말이,

“여자가 사름을 죽인텐 말이 무신 말이니? 이거 큰일이 낫구나.”

이젠 나고가렌 헨다.

나고가난, 보난, 어달로 가리오. 주모할망 불을 숲암시낭¹³⁰⁾, 그디 강 혼말 두말

124) 베꼈디서: 밖에서.

125) 내: 연기.

126) 고망: 구멍.

127) 웬 귀 느단 귀: 왼쪽 귀 오른쪽 귀.

128) 질: 길.

129) 즈식은: 자식은.

130) 숲암시낭: 살고 있어서.

허단

“나는 주년국 즈청비우다 영 허영 오랏우다.”

영 허영 허는 말이,

“나도 애기가 엇영 즈드는다¹³¹⁾ 잘 오랏저.”

수양딸을 삼아가는구나.

오단보난, 아이덜이 부영일 잡아근에 허염시난,

“그걸 날 도렌.”

허영, 돈 냥 췌 사 놓고, 아랫녘에 김전국 대감집이 들어가난,

서방 말다 부영부영, 각시 말다 부영부영. 하도 허여가난, 아이고, 어떻허민 좋고.

들어가네,

“평이 사농¹³²⁾ 오랏우덴.”

허난,

“저 손님 안터레 청허라.”

말 므른 짐승도 멀리 오라나난, 애가 몰르고¹³³⁾ 시장 허염수덴.“

헤가난, 밀죽을 췌 내노난, 밀총을 허연 밀 셋바닥을¹³⁴⁾ 툇허게 즐란 묶으난, 물
은 그 물을 먹젠 허난 못 먹영 하도 탁탁 헤가난

“아이고, 이 물야, 저 물야. 우리 집이서사 밀죽을 먹엇주만은 나민 난 덧 행실허
고, 들민 든 덧 행실허라.”

영 글으멍 세 즐란¹³⁵⁾ 밀총을 툇 클르난¹³⁶⁾, 물을 할축할축 먹어간다. 물안장을
벧건 묶어 놓고, 그날 저녁엔 누워시난

서방 말다 부영부영, 각시 말다 부영부영. 허여, 뒤녘날 아침은 붉아네¹³⁷⁾ 김전국
대감님이 허는 말이,

“저, 온 손님 내보내라.”

즈청빈 눈 부비멍 나오멍

“무사 경 허염수과?”

“부영이 사농을 허켄 헨게만은 밤세낭 부영이가 울엇구나.”

눈 비비멍

“저 잇돌 아래 봅서. 부영이 사농 헛우다.”

베려보난, 부영이 사농을 허여시난, 맞구나. 즈원사위¹³⁸⁾ 허여간다. 즈원사월 허
여놓고, 남녀 간에 구들에 뉘 어떻허연 품사랑을 안허난, 김정승떡님애기가 허는 말
이,

131) 즈드는다: 걱정하는데.

132) 사농: 사냥.

133) 애가 몰르고: 속이 마르고.

134) 밀 셋바닥을: 말 헛바닥을.

135) 세 즐란: 허 묶어서.

136) 밀총을 툇 클르난: 말총을 툇 푸니.

137) 붉아네: 밝아서.

138) 즈원사위: 신부측에서 적극적으로 서둘러 얻는 사위.

“아바님아?”

“무사 경 험시니?”

“사월, 너미 도고 높은 사월 허염수다.”

“어평허난 경 허염시니?”

“남녀간에 품사랑을 아니 허염수다.”

“게건 이레 데려오라. 어평허연 품사랑을 아니 헤염시니?”

허난,

“그게 아니고, 우리나라 상시관에 과거 보레 가젠 허난, 과거 합격허고 허젠 허난 품사랑을 아니 헛우덴.”

허난,

“그것도 맞앗구나.”

이제 가는구나. 물안장을 테왕 강 허는 말이,

“정이엇인정수넴이 죽어난 디 좃앙 글렌.”

허난, 구짜 좃앙 간 보난, 슬은 썩언 시네 방천이 돼여불고, 빼만 슬그랭이¹³⁹⁾ 잇엇구나. 서천꽃밭디 강 꽃감관에 등장을 들어, 살아날 꽃, 피 오를 꽃, 말 곶을 꽃, 즈근즈근 혜단 우트레 문딱 올려 놓고, 정이엇인정수넴이야, 삼세 번을 내후리난 와 들랭이¹⁴⁰⁾ 일어나명,

“봄 즈이사 너미 오래 자지엇구나.”

좃앙 집이 간,

“아바님아, 어머님아, 이 귀한 종 살려오랏수덴.”

허난,

“아이고, 여편 년이 어평허민 사름을 죽이곡 살리곡 허느닌?”

그때엔 혼 설 두 설 열다섯 십오세 입단 옷 다 내어주명,

“나고 가라.”

정이엇인정수넴일 거느리고 오단 보난, 주모할망이 잇엇구나. 그디 앗앙 그날은 이말 저말 곤단 보난,

“아이고, 나도 애기가 엇영 무유허던 찰나에 잘 돼엇구나.”

수양딸로 삼안 살아가는구나.

흐를 날은 어머님이, 베려보난¹⁴¹⁾, 베틀 클에 앗안 명지도폭을 지엄시난,

“어평 허난 명지도폭을 지엄수과?”

“하늘옥황에 문왕성의 아들 문도령이 서수왕에 장게 가젠 허난 이 도폭을 지엄젠.”

허난,

“어머님아, 그거 나가 차쿠다¹⁴²⁾.”

139) 빼만 슬그랭이: 빼만 온전히 그 모습을 남긴 꼴.

140) 와들랭이: 누웠다가 가볍고 잼싸게 벌떡 일어나는 꼴.

141) 베려보난: 바라보니.

142) 차쿠다: 짜졌습니다.

“기영 허라.”

베틀 클에 앓아근에 명지도폭을 지어간다. 아이고, 지어가명 비세굴이 울단보난 백옥굴은 얼굴에 중천굴은 눈물이 명지도폭더레 똑똑 떨어지난, 금바둑도 새겨간다. 옥바둑도 새겨간다. 기린도 새겨간다. 영 허영 명지도폭을 지언

“어머님아, 이거 앓영 가진덜랑 하늘옥황에 올라가건 누게가 지어시넨 허건덜랑 주년국 즈청비가 지엇젠 곶아줍서¹⁴³⁾.”

경 허난,

“어서 곶랑 기영허라.”

주모할망 그걸 앓안 올라간 안네난,

“천하 솜씨로구나. 이거 누게가 지엇이넨?”

허난,

“주년국 즈청비가 지엇젠.”

허난, 아이고, 문도령은 귀에 익은 소리로구나.

“나 모릿날 스오시가 돼민 느리쿠텐.”

허난, 이젠 오라네 스오시가 돼가난

“어머님아, 밥을 험셴.”

허난,

“경 허라.”

가근에 밥을 허연 문 느려놓고¹⁴⁴⁾ 오라가난, 허는 사이에 문도령이 느렸구나. 즈청비는 하도 지꺼지난 구들 안네서 문고릴 잡안 영 등겨가난에, 문도령은 문고릴 잡안 동기젠 허난¹⁴⁵⁾ 즈청비는 명지도폭 짜단 족대 앓앙 손가락을 꼭 찢르난, 피가 불긋허게¹⁴⁶⁾ 나난,

“야, 이거 인간 세상 사름 살 디가 아니로구나.”

옥황더레 다시 저 올라가는구나. 올라가부난, 어명은 밥 행 오라시난, 즈청비가 허는 말이,

“아이고, 으 어명, 저 어명. 요망험테가? 어명 노망이 낫우과? 어명 밥이 두 사발 이파? 어명허난 손가락이 두 개파?”

씨암특 잡아놓고 허난에, 하도 헤가난, 그뻘 할마님이

“이 년아, 저 년아, 너 행실이 경 허난 원아방 원어명에도 눈에 곶리가 낫구나¹⁴⁷⁾. 나도 느 닳은 뜰 필요엇다 나고가라. ”

나고가난 허는 말이, 곶미곶산 아약삼성 신산곳은 높은 절간법당에 간 대공단 고칼¹⁴⁸⁾로 머털 비어가는구나. 중이 행착을 출렸구나.

흐를 날은 가단보난, 궁예청, 원예청, 신예청덜이 하도 울엄시난,

143) 곶아줍서: 말해주세요.

144) 느려놓고: 내려놓고.

145) 동기젠 허난: 당기려고 하니.

146) 불긋허게: 붉은 반점이나 꽃 따위가 핀 꼴.

147) 곶리나다: ‘마음에 부족하여 눈에 거슬리다.’의 뜻으로 쓰임.

148) 대공단 곶칼: 비단 곶칼에서 비슷한 발음의 곶칼로 바뀜. 여기서는 머리는 미는 곶칼의 뜻으로 쓰임.

“느네 무사 이디 상 아이들이 울엄시니?”

허난,

“무사 울엄시니?”

“아이고, 그게 아니고, 하늘옥황 문도령이 즈청비 몸모욕¹⁴⁹⁾ 헤난 물 떠 오렌허난
그딜 못 좇앙 울엄수덴.”

허난,

“경허민 느가 나를 들앙 그디 곶이 가켄허민 나가 그르쳐 줌이엔¹⁵⁰⁾.”

허난,

“경 험센.

허난, 중천당 연훤못(蓮池)디 강

“이 물이 기엔.”

허난, 그 물 떠앗언 올라가는구나. 하늘옥황더레 곶이¹⁵¹⁾ 올라가는구나. 낮인 땡
기고, 밤인 땡기단, 밤인 일출동경이 떴구나. 즈청빈 무똥¹⁵²⁾에 샷단¹⁵³⁾ 문도령 나
오라가난 확허게 올레 간 높은 낭에 앓앗구나. 문도령도 저 일출동경 보멍 즈청빌
생각허고, 즈청비도 저 들(月)을 보멍 문도령을 생각허엿구나. 콧노레가 불러가난,
어떻허난 귀에 익은 소리가 들런 간보난 즈청비로구나. 그때엔 만단홀목¹⁵⁴⁾ 잡앙
구들러레 들어오랑 비세곶이 울어간다, 사랑 사랑 품사랑을 허여가는구나. 영 허니,
낮이는 썩풍더레 곱지곡, 밤인 품사랑을 허여가는구나. 어떻게연 문도령이 밥도 잘
안먹고, 물도 잘 안먹는 어른이, 종하님이 간보니, 어떻게난 밥사발도 비영 오곡 국
사발도 비영 오라가난 그냥은 안 닦아뵈고, 창고망을 터쥘¹⁵⁵⁾ 베려보난 즈청비영
품사랑을 허는구나. 그 때엔 오랑 상전임신디 곶으난, 즈청빈 벌써 알안

“가근에 아버님 어머님이 흐뎡 이시민 오렌 헐거난 가근에 나 곶는 양 험서.”

“어서 곶랑 기영 허라.”

“묵은 장이 줍네까¹⁵⁶⁾? 새 장이 줍네까?, 묵은 옷이 줍네까? 새 옷이 줍네까?, 묵
은 사름이 줍네까? 새 사름이 줍네까? 곤건 덜랑 이와 곶이 대답험센.”

“어서 곶랑 기영 허라.”

아닌게아니라 흐뎡 이시난 오렌 허난, 가난 허는 말이,

“아바님, 어머님야. 들어 볼 말이 잇우다.”

“무시거니?”

“묵은 장이 줍네까? 새 장이 줍네까?”

허난,

149) 몸모욕: 목욕.

150) 그르쳐 줌이엔: 가르쳐 주런다.

151) 곶이: 같이.

152) 무똥: 드나드는 문이 있는 출입구나 그쪽의 가장자리 주변.

153) 샷단: 서 있다가.

154) 만단홀목: 손목.

155) 터쥘: 뚫어서.

156) 줍네까?: 좋습니까?

“새 장은 색깔은 좋아도 깊은 맛이 엇언, 묵은 장이 존는 법이여.”

경 허난,

“새 옷이 좁네까 묵은 옷이 좁네까?”

“아이고, 묵은 옷은 입으민 아무테나 병탕병탕 허주만은 새 옷을 입으민 경 못헌다.”

“경 허민 새 사름이 좁네까? 묵은 사름이 좁네까?”

“아이고, 묵은 사름안탄¹⁵⁷⁾ 속엿 말도 다 곤주만은 새 사름안탄 속엿 말도 다 못곤는 법이여.”

“게민 나, 서수왕에 장게 아니 가쿠다.”

영 허난 허는 말이,

“꺏사 중년 땡검선게만은¹⁵⁸⁾ 호탕에 빠져구나. 가근에 중 년 강 심어¹⁵⁹⁾오라.”

중년을 심어다네,

“너가 정녕 우리 문칩이 며느리가 뉘젠허민 우리가 허는양 허겠느냐?”

“경 험서.”

숫구텨일¹⁶⁰⁾ 파 놓고 숫구텨이 석 섬 닷 말 알로¹⁶¹⁾ 왕강허게 살와 난, 늦이 시 퍼렁헌 칼날을 난에 이 칼로 발아가고 발아오민 우리 문칩이 며느리가 정녕허덴 허난, 즈청비는 이거 춤 기가 찰 노릇이로구나. 그 때는 칼판을 발아오명 문도령 손을 심영 즈청비가 허는 말이,

“멩천 곶은¹⁶²⁾ 하늘님아, 지에 곶은 하늘님아. 좇인 낭게 앳인 낭게¹⁶³⁾ 꺏인 빗살 줌진 빗살 훑은 빗살 내려근에 저 불 꺼주영 칼판 발아가게 허여줍센.”

허난, 아이고, 하늘이 감동허엿든가, 좇인 낭게 앳인 낭게 보인 낭게가 당천허여 가는구나. 불을 문딱 꺼주영 칼판을 발아오난¹⁶⁴⁾, 다 문딱 발아오라네 슬쩍허게 영 허는 게 뒤꿈치를 툅허게 베난, 그제 여자엔 훑허게 즈추모루¹⁶⁵⁾에 치메각을 동그령 앳으난 그 법으로 여자는 금시상 탄생허민 혼 설 두 설 열다섯 십오 세가 뉘민 혼 덜 혼 번 오는 월경법을 마련허엿우다. 옛날엔 문 험수다만은 옛날 어른들은 다 월경이엔 헛주만은 요새엔 다 그런 것도 아니엔 험디다. 경 허난 허는 말이,

“아이고, 우리 집이 며느리가 적실허여 가는구나.”

이젠 문칩이 메느리로 들어 산, 하도 착허연 바농질도 잘허곡, 부모에 효도허고, 서방님에도 일가방상 위허난, 궁 안네에 다 소문이 들어간다. 일기생들이 허는 말이, 문도령을 불르난,

즈청비가 허는 말이, 속에 숨을 허연 목 알로 가슴더레 숨뿍¹⁶⁶⁾ 답안

157) 묵은 사람안탄: 오래된 사람에게는.

158) 땡검선게만은: 다니더니만.

159) 심어: 잡아.

160) 숫구텨일: 숫을 굶는 가마를.

161) 알로: 아래로.

162) 멩천 곶은: 멩천 같은.

163) 좇인 낭게 앳인 낭게: 낮게 자욱하게 깔린 안개.

164) 발아오난: 밟아오니.

165) 즈추모루:

“나 굳는 대로 혜영 가진덜랑 먹는추룩 허멍 가슴 소꿉더레 술 비읍서. 독주가 웹네덴.”

허난,

“기영 허렌.”

물안장을 채워 물을 탕 궁 안네에 들어간 궁예청 원예청 신예청 일가락 일기생
덜이 술을 혼 잔 먹읍센 허난, 술을 비와도 비와도 문도령은 아니 취허곡 죽지도
안허난, 이젠 일어난 오라간, 몬저 돌아오란 삼도전 거리 주모할망신디

“흐끔 이시민 문도령이 넘어간 요 술 혼 잔만 맥여줍서.”

허난,

“어서 걸랑 기영 허렌.”

지금 곱으민¹⁶⁷⁾ 할망신디레 돈 흐끔¹⁶⁸⁾ 준 생이라. 오라간 허는 말이, 할마님
이 허는 말이,

“아이고, 넘어가는 디 요 술 혼잔 먹영 갑서. 나 스정¹⁶⁹⁾ 뿡 먹읍센”

허난, 문도령은 할마님이 주는 술이라 어떻 안허카부덴 먹으난, 그제 독주가 뉘연
죽어가는구나. 물 안장에 ㄱ로¹⁷⁰⁾ 걸쳐진 오랏구나. 아이고, 죽엇구나. 구덜러레¹⁷¹⁾
눅저¹⁷²⁾ 놓고, 즈청비는 알안 그날 즈낙엔¹⁷³⁾ 피체글은 도둑놈들이 분명히 죽일 판
으로 올거난, 가시방석을 만들어 간다. 쉼로 혜영 쉼 즈베기¹⁷⁴⁾를 멘들아간다. 산에
간 왕제여, ㄱ스락제¹⁷⁵⁾여, 요세엔 메미엔 험니다게. 옛날엔 제엔 헛주. 요세엔 메
미엔 헤도. 구들 안너레 문 묶어 난 잇어간다.

흐를 날은 이시난, 이 밤이 뉘여간, 피체글은 도둑놈들이 아닌게아니라 와시난,
즈청빈 딱 앓앗단

“요 방석 우터레 앓입서.”

방석 우터레 앓이난 가시방석이난 또꼬냥을 짹짹 찢러간다.

“요 즈베기나 먹읍센.”

출런 안네난, 쉼로 만든 즈베기난 니빨이 버삭버삭 부서지어간다. 아이고, 피체글
은 도둑놈들이 구들 문을 올안¹⁷⁶⁾ 보난, 빙 앵이¹⁷⁷⁾여, 왕제여, ㄱ스락제여 왕왕 올
어간,

“문도령 아니 죽엇구나.”

피체글은 도둑놈들은 다 터전 돌아가는구나. 돌아나부난, 즈청빈 서천꽃밭 들어산

166) 솜뽕: 가득찬 풀.

167) 곱으민; 같으면.

168) 흐끔: 조금.

169) 스정: 사정.

170) ㄱ로: 가로.

171) 구덜러레: 방에.

172) 눅저: 눅혀.

173) 즈낙엔: 저녁에는.

174) 즈베기: 수제비의 일종.

175) ㄱ스락제: 매미의 일종.

176) 올안: 열어서.

177) 빙 앵이: 등에 쇠파리.

살아날 꼳, 피 오를 꼳, 말 곶을 꼳 문딱¹⁷⁸⁾ 헤다 난,
 “이건 딱리는 메가¹⁷⁹⁾ 아니고, 살아남센 허는 메우다.”
 삼세 번을 내후리난, 문왕성 문도령이
 “봄 즈이사 너미 오래 자젓구나.”
 와들령이 일어난, 사노렌 허난, 서수왕에서 편지장이 오곡가곡 허난,
 “경 허건덜랑 선 브름이랑 이디 살곡, 후 브름이랑 그디 살앙, 브름이랑 그디 살
 당 오곡, 브름이랑 나신디 살당 갑센.”
 허난,
 “어서 곶랑 기영 허렌.”
 문도령은 죽은각시 신디 가난, 호탕에 빠전 선 브름, 후 브름이고 오질 안허여 가
 는구나. 경 허난, 흐를 날은 하늘옥황에 난리가 낫구나. 세변난리가 나난, 막을 자가
 엇어지어가는구나. 편지장은 올려도 아니오라가난, 즈청빈 올라 강 난리를 막아가는
 구나. 막아놓고 허여간다. 하늘옥황에서 인정¹⁸⁰⁾이 야속허다. 아무 것도 필요 엇우
 덴 허난, 느려사젠 허난, 열두 희망곡석을 앓안주난 느려산다.
 느려사단 보난, 삼도전 거리로 땡기단 보난, 정이엇인정수넬일 만나신디 죽을 지
 경이 땡엇구나. 거리지가 땡엇구나.
 “야, 이거 어떻힌 일이니?”
 “상전임네도 얘기씨 나가부난에¹⁸¹⁾ 죽언에 다 뉘 헤불고, 갈 디 올 디 엇고 얻어
 먹을 디 엇영 나도 죽을 지경이 땡엇우다.”
 경 허렌 허연, 가단 보난, 벨진 밧디 돌진 밧디 너른 밧디, 쉼쉬, 들쉬 잠
 대¹⁸²⁾ 메왕 밧을 갈앙 농서를 지엄시난,
 “야, 느, 저디 강 곶양¹⁸³⁾ 밥이나 얻어 먹영 오라.”
 “경 험센.”
 허영, 간 곶으난 허는 말이,
 “야, 우리 먹을 밥도 엇고, 우리 종 줄 것도 엇덴 나고 가렌.”
 “가난 뉘엔 곶아니?”
 “밥도 엇고, 우리 먹을 밥도 엇덴 내뉘디텐.”
 “경 허거덜랑 저디랑은에 정씨 뿌리지 말앙 헌씨 뿌령, 저디랑 흔 섬 날 때랑 반
 섬만 나게 허곡, 나부역¹⁸⁴⁾ 두무역¹⁸⁵⁾ 문딱 불러 쉼불곡, 벧 보섭에 사기살성 사름
 이영 광나니, 쉼쉬 들쉬에 빙앵이 불려주라. 오곡 농서에 접제기¹⁸⁶⁾도 불려주
 라. 나부역 두무역 문딱 불려주라.”

178) 문딱: 모두. 전부.

179) 딱리는 메가: 때리는 매가.

180) 인정: 신에게 바치는 재화. 또는 정성.

181) 나가부난에: 나가버리니.

182) 잠대: 발갈이의 도구인 쟁기.

183) 곶양: 말해서.

184) 나부역: 나비. ‘-역’은 ‘두무역’에 맞춘 조운음.

185) 두무역: 풍뎡이.

186) 접제기: 집계벌레.

영 허영 넘어간다. 넘어가단 보니, 할마님 하르바님이 토갱이¹⁸⁷⁾ 조그만 현 밧디
굴갱이¹⁸⁸⁾ 농서 허염시난,

“계건, 저레 강 보라.”

가네 허는 말이,

“하르바님, 할마님 질 넘어가단 하도 시장허고 배가 고프난 밥이나 잇건 흐뎡 줘
셴.”

허난,

“경 허렌. 저디 동고랑 찬 올안 보민, 나사 집이 강 우리 밥 헤영 먹으면 웰거난
그 밥 먹영 가렌.”

허난, 간 동고랑 찬 올안 밥이 잇엇구나. 논쟁이 범벅을 허연 놓아시난, 걸 먹어
얏언 오난,

“무시거옌 곶아니?”

“아이고, 가난, 배부른 밥 먹언 오랏수다.”

“경 허건덜랑 저디랑 정씨 뿌령 흐 섬 날 딘 두 섬 나곡, 두 섬 날 딘 세 섬 네
섬씩 내우라.”

영 허여 가는구나. 노력사단 문딱 마련허여 두고 오단보난, 씨 흐 방울이 떨어전
무시건고 베려보난, 믰물 씨¹⁸⁹⁾가 떨어지엇구나. 이젠 하늘옥황에 올라 간 믰물 씨
흐 방울 앗안 젓갱이¹⁹⁰⁾ 줍전¹⁹¹⁾ 노력사단보니 강태공 서목시털은 큰 낭¹⁹²⁾을 비
엄시난¹⁹³⁾ 툽밥이 헤영허영 그거에 믰물 씨 뿌런, 옛날도 뿌렷젠 허영 믰물 꽃¹⁹⁴⁾
은, 믰물 고장(花은) 헤영¹⁹⁵⁾ 허는 법입네다. 노력사단 보난, 저 바당에 줍수¹⁹⁶⁾
들 물질 험시난, 그디도 강 곶으난 경 허렌 허난 그때엔 저 바당¹⁹⁷⁾에 지 드리
는¹⁹⁸⁾ 법도 문 마련허엿수다.

꺏사¹⁹⁹⁾ 넘어가수다만은 믰물 고장은, 믰물 씨는 각이 진덴 헤영, 옛날 줍수들 속
웃 입으면 벌모작, 그것이 믰물 씨를 형상허는 거주게. 그 법을 헨에 벌모작을 헛덴
허주게. 요새사 그런 거 없주만은, 영 허난 노력잇습네다.

세경신증마누라 할마님네 난산국 본산국 시주낙형 신평영 올렛우다.

187) 토갱이: 그리 넓지 않은 논이나 밭을 일컫는 말.

188) 굴갱이: 주로 김을 뭍 때 쓰는 호미.

189) 믰물 씨: 메밀 씨.

190) 젓갱이: 겨드랑이.

191) 줍전: 사이에 끼워서.

192) 낭: 나무.

193) 비엄시난: 비고 있으니.

194) 꽃: 꽃.

195) 헤영: 하얗게.

196) 줍수: 헤너.

197) 바당: 바다.

198) 지 드리는: 재물을 조금씩 떠서 백지에 사고 바다에 던지는 행위.

199) 꺏사: 줍 전에. 아까 방금.